

태릉선수촌 진료실에 치과 설치 추진 스포츠치과의사 중요성 알린다



올림픽 등 스포츠 순위가 한 나라의 파워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면서 각국에서는 순위를 올리기 위한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스포츠의 특성상 외상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으며, 치의학 부문은 특히 그 정도가 심해 대처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스포츠치의학회를 이끌며 스포츠치의학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데 매진하는 이한주 회장으로부터 학회의 존재 의의와 비전을 듣는다.

취재 | 김정교 기자 denfoline@denfoline.co.kr



이한주 회장

취임 후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은?

작년 7월 취임하면서 세웠던 목표를 하나씩 이뤄가고 있다. 큰 틀에서는 학회가 외부에 알

려지도록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마우스가드와 세이프 투스, 태릉선수촌 치과 설치 건이 그것이다.

마우스가드는 △직접적인 외력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하고 △입술과 혀의 손상을 방지하며 △충격력으로부터 악관절을 보호한다. 특히 △악관절 및 치열을 통해 전달되는 뇌의 충격에 의한 뇌진탕이나 보다 심각한 뇌손상의 방지를 위해 구강 내에 장착하는 장치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 스포츠 외상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각종 보호 장구의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추세이다. 또한 이러한 보호 장구의 제작에 치의학자, 의학자가 필수적으로 참여케 하여 효용성 없는 장구의 생산

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우 현재 2~3만 원 짜리 1회용 마우스가드를 장착하는 경우가 많아 치과에서 제대로 된 보호 장구를 만들어 착용토록 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학회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친 결과 2~3년 전부터 태권도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마우스가드를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태릉선수촌 치과 설치는 어떻게?

현재 태릉선수촌 의무실에 치과가 없어 선수들의 구강건강관리는 물론 경기력 향상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런던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한 선수가 사랑니 통증 때문에 금메달을 놓쳤다는 사실은 치과계와 스포츠계에 잘 알려진 일이다. 모니터에서 시합 장면을 보면 그 선수의 불이부는 모습이 확실히 눈에 띈다.

아시다시피 올림픽 등 주요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도핑 테스트 때문에 약을 상당히 신중하게 써야 한다. 전문의사의 처방을 받아 도핑테스트와 관계없는 약을 쓰거나 치료도 세심하게 제대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치과 의사가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에 따라 경기력 향상에 절대적인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선수촌과는 기본적인 설치 방향에 대해 얘기가 됐다. 다음으로 재정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체어는 1대만 있으면 될 것으로 보며, 파노라마 등 기본 진단 장치와 치료를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동료들이 기부하는 물품으로 우선 치과 문을 여는 게 어떠한 의견을 내기도 한다. 그러나 선수는 국가의 중요한 자산인데 치과 장비를 증고로 설치하기는 그래서 방법을 찾는 중이다.

세이브 투스 문제는 어떤가?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치아손상이나 탈구됐을 때 치아를 살릴 수 있도록 학교 양호실에 세이브 투스를 비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흠이 묻은 치아를 그냥 치과에 가져오는 경우도 있을 만큼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형 세이브 투스를 개발해 전국 초·중·고에 비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은 세계 특허에 저촉되지 않게 만들어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부 등과 협의해 각 학교에 세이브 투스를 비치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종 스포츠 경기에 우리학회 이사



등 임원들이 참석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최근 개최된 세계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 우리 학회 이사가 참석해 진료를 제공한 뒤 IOC 주치의로 등록해 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앞으로 체육 전공자와 체대 학생 등 꿈나무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스포츠치의학회의 현황과 현안은?

현재 등록회원이 300여 명이며, 학술대회를 개최하면 150명 정도 참석한다. 또 각종 스포츠 종목의 국제심판이나 감독에 치과 의사가 많이 활동하고 있어 앞으로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학회의 가장 큰 현안은 학회 홍보이다. 이에 따라 스포츠치과 의사의 역할을 소개하는 브로셔를 전문 디자이너를 통해 제작해 오는 10월 전국체전과 인천아시안게임 등에서 부스를 마련해 홍보할 예정이다. 선수들이 치아와 턱관절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협회와 정부 등에서 스포츠치의학회에 충분한 지원도 있어야 한다.

또한 치과 의사들이 1~2회의 마우스가드 연수회 등에 참여하면서 제작방법만 익히고 가는 경우가 많으나 마우스가드가 왜 중요한지를 인식해야 한다. 제작을 기공사에게 맡기지 말고 중요성을 기공사와 함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치과 의사가 팀 닥터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학술대회 외에 하반기부터 2~4회에 걸쳐 연수회를 시리즈로 진행할 계획이다.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관련 지식을 쌓으면 체육계 등 관련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도 받게 될 것이다.

스포츠치의학회의 중요한 역할은?

우리 학회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팀 닥터'이다. 팀 닥터는 전국 초등학교부터 대학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팀의 주치의로서 활동하는 것이다. 사실 학교의 스포츠 팀은 모두 아마추어이므로 여기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기대하긴 어렵다. 그러나 봉사활동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맞춰 활동함으로써 치과 의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게 되는 것이다. 또한 치료 중심이 아닌 약안면 영역의 생리학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 점이라고 하겠다. 스포츠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외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면서 스포츠와 치의학의 융합하는 학술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체육계와 활발한 가교역할을 하면서 치의학의 영역을 넓히는 활동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합치면 그 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된다. 이들 학교마다 한두 개씩의 스포츠 팀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치과 의사가 팀 닥터를 맡아 활동을 한다면 사회적 역할과 함께 위상도 발전적으로 증진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스포츠치의학이 체계화돼 약안면 영역의 외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뤄져 왔다. 현재 일본 스포츠치의학회와 매년 상호 방문하는 등으로 교류를 진행하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 해외 매뉴얼과 자료, 정보를 수집해 스포츠치의학의 치료 범위와 확산성 등을 정비하고 있다. **D**